광주비엔날레 신정아 감독의 대담한 거짓말 행각

예일대 박사 커녕 입학도 안해 영어 안돼 캔자스대 3년 중퇴

'제2의 황우석 사건', '전대미문의 사기극'.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신정아씨의 거짓말 행각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충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혀있는 학력은 그가 최정상급 '엘리트' 코스를 거친 것으로 돼있다.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가서 1994년 캔자스대(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복수전공해 학사학위(BFA)를, 1995년에는 경영학석사(MBA)를 받았고 2005년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Ph. D.)를 받았다는 것이 신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관련 대학 당국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신씨는 캔자스대에 1992년 봄학기부터 1996년 가을학기까지 5년을 다니긴 했지만 3학년을 끝으로 학부를 그만뒀으며 서울대, 캔자스주립대 경영대학원, 예일대에는 입학한 사실조차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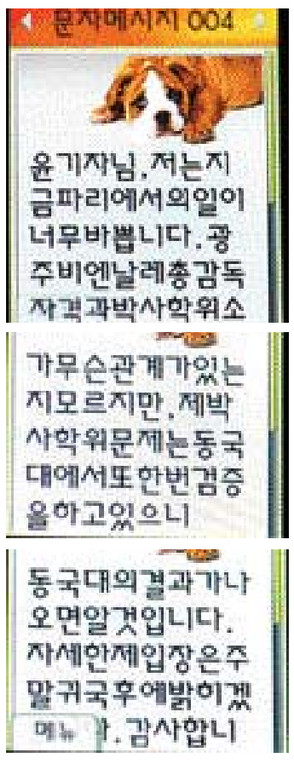
신씨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한 캔자스대 대학원 출신 직장인은 "신씨가 영어가 안 돼서 1~2년 가량 랭귀지 코스(어학연수)를 다니다가 1992년 캔자스대 학부에 등록했는데 졸업은 못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신씨가 그 동안 내세운 이력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며 "2~3년만에 복수전공을 해서 학부를 졸업하고 1년만에 MBA를 했다는 건데 캔자스대에는 1년짜리 MBA 과정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1996년 8월 예일대 대학원에 입학해 2005년 5월 졸업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 또한 기본적인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이었다. 캔자스대에 1996년 가을학기까지 학부 3학년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은 최소한 3년간 상주하며 코스워크를 치를 것을 요구하므로 신씨가 1996년 8월에 예일대 대학원에 입학하고 1997년부터 국내에서 큐레이터로 활동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 이런 모순점으로 인해 신씨의 학력이 가짜라는 얘기는 지난해 말부터 미술계에 파다했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전대미문의 사기극" 광주·전남지역 충격



'가짜 학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신정아 감독이 지난 9일 본사 기자의 휴대전화로 보내온 문자메시지 내용.

더욱 황당한 것은 신씨가 매우 유명한 논문을 자신의 진짜 박사 논문인양 동국대에 제출해 임용이 됐다는 점이다.

신씨가 제목을 포함해 거의 모든 부분을 고스란히 베낀 표절 대상 논문은 에카테리니 사말타노우-치아크마(Ekaterini Samaltanou-Tsiakma)의 1981년 버지니아대 박사학위 논문이다.

이 논문은 1984년 별도의 단행본으로 출간(저자의 이름이 결혼 등으로 일부 바뀜)됐고 근현대 서양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저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신씨는 광주일보가 이번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지난 8일 전화를 걸어와 "예일대 박사를 받은 것은 맞다. 동국대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일부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거짓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지난 5일 신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가 교수로 임용된 것은 현장 전문가이기 때문이지 내 논문이 좋거나 내가 뛰어난 학자라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씨는 또 9일 "귀국후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런 대담한 거짓말 행각과 도덕 불감증 때문에 각종 미술 관련 게시판에는 신정아씨를 가리켜 '예술계의 여자 황우석'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은 얼핏 보더라도 모순 투성이인 신씨의 위조 학력과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

동국대는 신씨가 2005년 임용될 때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외국박사학위신고필증, 박사과정 성적표 등을 아예 받지도 않았다. 게다가 학·석사 취득 학교로 돼 있던 캔자스대측으로부터는 아예 확인을 받지도 못한 상태로 임용이 이뤄졌다.

광주비엔날레 사무국 관계자는 "학력위조와 논문표절 얘기가 있었으나 동국대 최고위 관계자가 '아무 문제 없다. 검증 마쳤다. 보증한다'고 말해 그냥 넘어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동국대에 책임을 미뤘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광산업 생산액 4조3천억 달성

■광주시 3단계 지역산업발전(2008년~2012년) 로드맵

11일 윤곽을 드러낸 광주 제3단계 지역산업발전로드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광주시, 광주전략산업기획단이 공동으로 각계 대학교수, 기업 관계자,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해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연구원 등과 100회 이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약점과 강점, 그리고 위기와 기회=진단 결과, 광주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광산업 육성에 따른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집적돼있지만,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고부가산업이 없고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인 추진역량도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선도 고부가산업 없어

산업별로는 광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업체가 1군데에 불과할 정도로 자본력·종업원 수 등이 부족하고, 특히 고급기술인력이나 기업 경쟁력도 미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가전산업은 생활가전의 공급과잉과 중국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감소한데다, 디지털 가전으로의 전환점에서 시제품 제품 개발과 제작에 필요한 중요 기술력 부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2004년 기준 GRDP(지역내총생산) 19.6%, 제조업 종사자수 25.8% 광주 경제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원천핵심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디자인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비전과 전략=이런 분석을 토대로 분야별로 마련된 비전은 ▲세계 3대 광선진국 도약및 세계 광산업메카 도약(광산업) ▲세계 3대 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산업 메카 육성(정보가전산업) ▲글로벌 지능형 자동차 부품 생산도시 조성(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세계 제일의 유니버설 디자인 혁신클러스터로의 발전(디자인산업) 등이다.

디자인 혁신클러스터로 발전

광산업 분야에선 차세대 광기반융합사업을 통해 목표년도인 2012년까지 4조3천억원(부가가치 1조6천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광 정보네트워크·반도체조명·광 정밀 시스템·태양에너지산업 등에서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보가전산업 분야에선 광주가 국내 1위의 디지털 가전도시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7조원인 생산액을 목표년도까지 10조원으로 끌어올리고, 자생적 생산기반을 갖춘다는 구상이다. 유비쿼터스생활가전·첨단전자부품·가전로봇 등을 특화유망분야로 선정, 집중육성한다.

자동차·첨단소재 부품산업에선 환경친화적 지능화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전장(전기장치)기술개발에 주력해 친환경 지능형자동차 부품의 글로벌 생산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가 세워졌다.이를 위해 산업집적화 및 기반조성(2010년)→원천핵심기술 및 국제표준화 기술확보(2012년) 등의 단계별 전략도 마련했다.2015년까지 8조2천억원의 출하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 3단계 지역산업발전 로드맵 사업

전략산업	세부특화 분야	주요 육성 분야
광 산 업	차세대 광기반 융합사업	-광 정보 네트워크 -반도체 조명 -광 정밀시스템 -태양 에너지산업
정 보 가 전	디지털 생활가전·부품	-유비쿼터스 생활가전 -첨단 전자부품 및 모듈 -가전로봇
자동차·첨단 부품소재산업	자동차 전장 부품및 금형	-첨단 기능성 전장부품 -센서 및 제어 유닛 -초경량/초강도 성형 금형·부품
디자인 산업	유니버설 제품 디자인	-조명·가전·의료 운송기기디자인 -환경시설물 디자인

자동차 부품 글로벌 거점 육성

디자인산업은 연구·생산·판매 기능이 통합된 지역 특화형 디자인산업 직접화 비즈니스 콤플렉스 모델 구축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세계적 비즈니스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시는 이를 통해 반도체 조명·생활가전·의료· 자동차 분야에서 '메이드 인 광주' 제품을 명품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와 가전, 광산업에서 구축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면서 첨단부품소재산업, 태양에너지산업, 디자인산업 등 신성장산업을 추가 육성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3朴 회동'도 대통합 결론 못 내

박광태시장·박준영지사 압박…박대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우리당 해체 못한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이 11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통합을 위한 우리당 해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천 통합민주당 공동 대표와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11일 서울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범여권 대통합의 방법론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특히, 박시장은 이날 회동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방문, 범여권 통합 문제와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통합민주당에서 범여권 대통합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통합민주당은 중도개혁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범여권 제정파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접촉하고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결론이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12일 서울서 통합민주당 대통합과 현역의원들과 김영진 광주시당 위원장 등과 함께 회동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한, 오는 14일 광주에서 대통합과 '8인 회동'을 갖고 범여권 대통합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